

군산시는 8일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와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NH농협 군산시지부 아침밥 먹기 운동 협약 체결

군산시는 8일 균형된 식생활 습관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군산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와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된 내용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 나눔행사 및 건강한 식생활 습관 홍보,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상호협력, 각종 행사 기념품 등에 군산에서 생산된 쌀 가공제품 적극 사용, 군산쌀 산업기반 유지와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캠페인 협력

등을 담았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군산시지부(지부장 원천연)는 시청 1층 로비에서 직원 및 민원인에게 심리향으로 만든 가래떡과 식혜 음료 나눔 행사를 실시하며 아침밥 먹기 생활화를 알렸다.

원천연 지부장은 “군산시와 협력해 올바른 쌀 소비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 개선과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

군산시 ·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쌀 소비 촉진 ... 시청직원, 민원인 대상 아침밥 나눔 행사

8일 군산시와 농협중앙회군산시지부(지부장 원천연)는 시민들의 균형된 식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군산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측은 쌀값 하락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산 쌀의 우수성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에 힘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밥 나눔행사 및 건강한 식생활 습관 홍보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상호 협력 ▲각종 행사 기념품 등에 군산에서 생산된 쌀 가공제품 적극 사

용 ▲군산쌀 산업기반 유지와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캠페인 협력 등을 담고 있다.

협약식에 앞서,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는 군산시청 1층 로비에서 직원 및 민원인에게 심리향으로 만든 가래떡과 식혜 음료 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아침밥 먹기 생활화를 홍보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신원식 부시장과 농협 군산지부 임직원들. 농협 군산지부 제공

군산시·농협 군산지부 '아침밥 먹기' 캠페인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NH농협 군산시지부(지부장 원천연)가 8일 군산시청에서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군산시청 공무원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협 군산시지부는 군산시를 시작으로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쌀 소비증대를 위한 홍보 활동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고객사은행사, 취약계층 기부 등 다양한 쌀 소비촉진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협약체결

8일 군산시와 농협중앙회군산시지부가 시민들의 균형된 식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군산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측은 쌀값 하락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산쌀의 우수성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에 힘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밥 나눔행사 및 건강한 식생활 습관 홍보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상호 협력 ▲각종 행사 기념품 등에 군산에서 생산된 쌀 가공제품 적극 사용 ▲군산쌀 산업기반 유지와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캠페인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유상근 기자



균형된 식습관으로 건강 챙기자

군산·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아침밥 먹기 운동 협약

8일 군산시와 농협중앙회군산시지부(지부장 원천연)는 시민들의 균형된 식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군산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날 협약을 통해 양측은 쌀값 하락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산쌀의 우수성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에 힘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밥 나눔행사 및 건강한 식생활 습관 홍보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상호 협력 ▲각종 행사 기념품 등에 군산에서 생산된 쌀 가공제품 적극 사용 ▲군산쌀 산업기반 유지와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캠페인 협력 등을 담고 있다.

협약식에 앞서,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는 군산시청 1층 로비에서 직원 및 민원인에게 심리향으로 만든 가래떡과 식혜 음료 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아침밥 먹기 생활화를 홍보했다.

/군산=박수현 기자

“건강식생활·쌀소비촉진” 군산,시민아침밥먹기운동

군산시가 시민들의 균형된 식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에 나선다.

8일 시는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쌀값 하락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산 쌀의 우수성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에 힘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주요 협약 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밥 나눔행사 및 건강한 식생활 습관 홍보 등에 군산에서 생산된 쌀 가공제품 적극 사용, 군산쌀 산업기반 유지와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캠페인 협력 등을 담고 있다.

협약식에 앞서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는 직원 및 민원인에게 심리향으로 만든 가래떡과 식혜 음료 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아침밥 먹기 생활화를 홍보했다. 군산=강경창기자

군산시, 시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 전개

전북 군산시가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와 ‘시민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 행사는 시민들의 균형된 식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군산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한 식생활 습관 홍보 △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상호 협력 △각종 행사 기

념품 등에 지역 생산 쌀 가공제품 적극 사용 △군산쌀 산업기반 유지와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농협 군산시지부는 군산시청 1층 로비에서 직원과 민원인에게 심리향 쌀로 만든 가래떡과 식혜 음료 나눔 행사를 열었다.

뉴스

쌀 소비 촉진 활성화 붐 조성 '한마음 한뜻'

군산시-농협중앙회 군산지부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는 8일 농협중앙회군산시지부와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측은 쌀값 하락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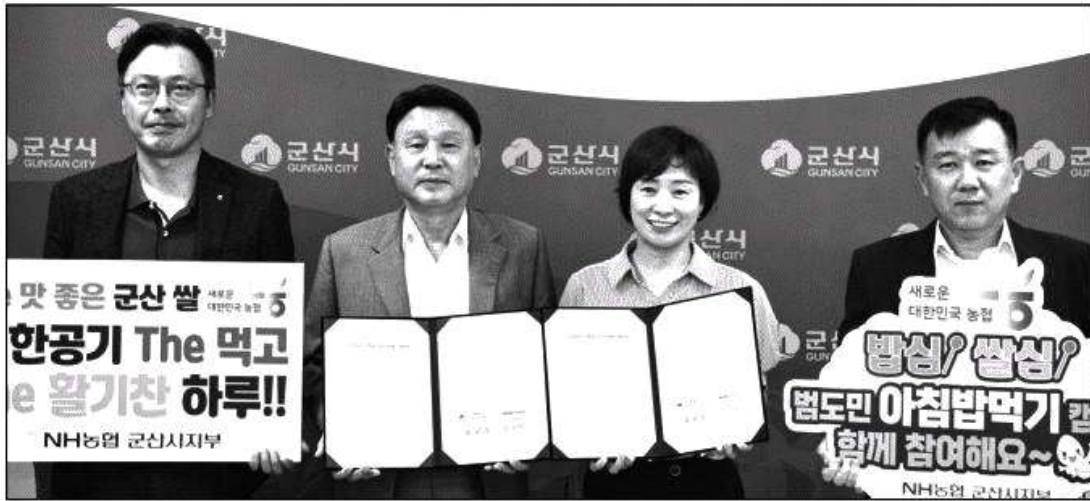
소에 동참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산 쌀의 우수성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에 붐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밥 나눔행사 및 건강한 식생활 습관 홍보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상호 협력 △각종 행사 기념품 등에 군산에서 생산된 쌀 가공제품 적극 사용 △군산쌀 산업기반 유지와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캠페인 협력 등이다.

강임준 시장은 "최근 쌀값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 개선과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찬우 기자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협약 체결

군산시 ·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군산쌀 소비촉진 홍보활동

8일 군산시와 농협중앙회군산시지부(지부장 원천연)는 시민들의 균형된 식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군산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측은 쌀값 하락과 1인당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산 쌀의 우수성과 쌀 소비 촉진 활성화에 힘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침밥 나눔행사 및 건강한 식생활 습관 홍보 △군산시민 아침밥 먹기 운동 상호 협력 △각종 행사 기념품 등에

군산에서 생산된 쌀 가공제품 적극 사용 △군산쌀 산업기반 유지와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캠페인 협력 등을 담고 있다.

협약식에 앞서,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는 군산시청 1층 로비에서 직원 및 민원인에게 십리향으로 만든 가래떡과 식혜 음료 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아침밥 먹기 생활화를 홍보하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최근 쌀값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 개선과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